

살롱1890 근대음악축제 재.재.재 : 다시.또.한번

가이드북





20세기 문화예술이 21세기 서울남산국악당에서 다시 시작된다!



구한말의 종로, 일제 강점기의 충무로 그리고 현재의 남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예술이 공간에서 시간을 타고 탄생하고 잊혀졌다.
현대 예술가들의 시각으로 재발견한 근대 문화예술을 재해석하고
시공을 초월하는 현대적 콜라보레이션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그램



<재.재.재: 다시. 또. 한번>

PROGRAM	LINE UP	DATE	LOCATION
기연방: 근대음악의 재해석	OFFLINE 장유정	2021.10.01. 금요일 15:00	서울남산국악당 체험실
농옥전: 근대국악기의 재발견	OFFLINE 유경화	2021.10.11. 월요일 19:30	서울남산국악당 체험실
모단레코드: 근대가요의 재탄생	ONLINE 국악인가요 / DJ카운 / The 톨 / 경기남부재즈	2021.11.13. 토요일 19:30	유튜브/네이버TV '서울남산국악당'

기연방: 근대음악의 재해석

<기연방>은
'말을 나누는 방,
말씀방'이라는 의미이다.
기연방에서 초기 근대
가요의 모습을 알아보고,
현대 대중음악의
모태가 된 노래들을
갈래별로 살펴보자.

농옥전: 근대국악기의 재발견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문명의 충돌로
탄생한 근대국악기
'철현금'은 왼손의 '농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소리의 깊이를
표현한다. 농옥의 움직임으로
펼쳐나가는 농옥전이
시작된다.

모단레코드: 근대가요의 재탄생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한 레코드회사
<모단레코드>의 쇼케이스가
2021년 가을밤 열린다.
시간이 멈춘 남산국악당에서
21세기 아티스트들의 시선으로
해석한 20세기 가요의 파격적인
재탄생을 감상해보자.

기연방 : 근대음악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근대음악의 역사를 '이야기'로 만나보는 시간

<기연방>은 其言訪 其 그 기 말씀 언 房 방 방의 한자를 사용하는, '말을 나누는 방, 말씀방'이라는 의미이다. 이 땅에서 발생한 '자생의 대중가요'라 할 수 있는 신민요(新民謠), 서구식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재즈송,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유행가(트로트), 해학적인 노랫말로 이루어진 만요(Comic Song)에 이르는 네 가지 갈래를 만나보자.

<Gie Eon bang> is using Chinese language 其言訪 with the meaning of 'a room to share saying, a saying room.' We would meet four offshoots (genres) reaching out to such as a new folk song that can be said to be 'a popular song of growing naturally' that arose in this land, jazz songs which wa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western-style popular music, popular songs (trot) that emerg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popular music and comic songs with humorous lyrics.

강연자 **장유정**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대중)음악사학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유성기 음반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2004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 '근대가요 다시 부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3년에 『장유정이 부르는 모던 조선: 1930년대 재즈송』 음반을 제작·발매했다.

일시 2021.10.01.(Fri) 15:00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체험실



농옥전 : 근대국악기의 재발견 Rediscovery



동서양 문명의 충돌로 탄생한 철현금과의 만남

<농옥전>은 서양 기타와 국악기를 접목하여 만든 철현금을 통해 국악기에 스며든 근대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이다. '철현금'은 왼손의 '농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줄을 문지르며 소리의 깊이를 표현한다. 철현금 연주자 유경화의 연주로 되살아나는 근대국악기의 소리를 재발견해보자.

<Nongokjeon> is a time to feel the breath of modernity permeated into South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through a kind of zither made by grafting Western guitar onto traditional instruments. Modern instruments 'Iron Hyun Geum' expresses the depth of the sound having a tool called as 'nongok' of left hand. Let's rediscover the sound of modern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being revived by the performance of the Iron Hyun Geum player Kyung-hwa Yu.

연주자 **유경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한양대학교 음악학 박사)

4살 때 한국무용을 시작으로 전통음악에 입문한 유경화는 국악을 중심으로 둔 전통음악과 월드뮤직, 그리고 프리뮤직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경화의 월드뮤직 음반은 세계 유수 월드뮤직 평단의 호평을 받아왔으며 2017년 일본 월드뮤직 음반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평론가들은 철현금의 '중시조'로 유경화를 꼽으며 21C 전통음악의 확장성을 열어갈 철현금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객원 **이우주** 제38회 전국고수대회 일반부 대상

일시 2021.10.11.(Mon) 19:30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체험실



20세기와 21세기의 콜라보 무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한 레코드회사 <모단레코드>의 쇼케이스가 시작된다. 21세기 아티스트들이 20세기 초 음반 판매 선두를 차지했던 노래를 들려주는 ‘모단레코드’에서는 그들의 시선으로 해석하여 재탄생된 근대가요들을 만나볼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을 선보이는 퓨전국악밴드인 ‘국악인가요’는 <유행가와 만요>를 경기남부재즈류를 전승받은 4인의 이수자들로 구성된 재즈밴드 ‘경기남부재즈’는 <재즈송>을, 에너지 넘치는 월드뮤직 영역을 개척해온 ‘The 튠’은 <신민요>를 다채로운 음악적 세계로 편곡하여 선보인다. 또 후쿠오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DJ 카온이 근대가요를 리드미컬한 사운드컬러로 리믹스시켜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재탄생된 21세기형 근대가요를 만나보자.

The special record company <Modan Record>, who has not changed by time and space, will begin a showcase. It will be send to that the songs which made a splash in album market of early 20th century recreated by the interpreting perspective of 21st century musicians. ‘Gugak in gayo’, a fusion traditional band who brings to joy for listening at all ages, will show <Popular songs and Comic songs>. ‘Gyeonggi Southern Jazz’, consisting of four graduates who inherit a sort of the Gyeonggi Southern Jazz, will show <Jazz Songs>. ‘The Tune’, who have explored the World Music area which is overflowing energy, will show <New Folk Music> by arranging it into a colorful musical world. In addition, DJ Kayon who is active based on Fukuoka will show the modern songs arranged into rhythmical sound. Let’s see what is a new modern song of 21st century.

일시 2021.11.13.(Sat) 19:30 채널 ‘서울남산국악당’ 유튜브/네이버TV

ARTIST / SET LIST

국악인가요

유행가 - 울어라 문풍지 (1940) / 만요 - 유쾌한 시골영감(1936) /
유행가 - 목포의 눈물 (1935) / 유행가 - 봄아가씨 (1935)

DJ KAYON

Remix

The 튠

신민요 - 꽃을잡고 (1934) / 신민요 - 관서천리 (1935) /
신민요 - 삼살개타령 (1939) / 신민요 - 오동나무 (1931)

경기남부재즈

만요 - 오빠는 풍각쟁이야 (1938) / 재즈송 - 다방의 푸른꿈(1939) /
재즈송 - 이태리의 정원 (1936) / 재즈송 - 바다의 꿈 (1939)

퓨전국악가요



국악인가요는 국악을 기반으로 듣기 쉽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퓨전국악밴드이다. 소리꾼과 서양악기(기타/드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소리/민요/창작곡을 기반으로 대중음악적 구조를 이용해 국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표현 방법으로 많은 이로 하여금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퓨전국악밴드'이다.

소리 노걸이 기타 배대준 드럼 박세훈



KAYON은 대한민국의 DJ이며, 현재 후쿠오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레이블 'Undulate'와 크루 'Woorii'에 소속되어 있다. 여러 해외 레이블에서 mix set을 공개했으며 최근 첫 EP앨범 'Jungle Beam'을 발매하였다.



DJ KAYON

The Tune



더 튠(THE TUNE)은 서로 다른 음악색을 가진 뮤지션들이 만나 한국 전통음악을 재해석하여 실험성이 강한 창작국악을 선보이는 국악밴드이다. 한국의 샤머니즘, 민요 등 전통적인 것, 원시적인 것, 오래된 것을 들춰내 창작의 모티브를 찾고 월드뮤직 영역을 개척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201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대상 수상 이후, 지속적인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장구/쟁과리 이성순 보컬 고현경 건반 이유진 퍼커션 타무라료

경기남부지방에서 은밀히 내려오던 '경기남부재즈류'를 전승받은 4인의 이수자들로 구성된 재즈밴드이다. 한국 고유 재즈의 범지구적 확산과 한국재즈의 대중화에 고민하는 창작 집단으로 음악 속에는 록, 팝,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2019년 EBS 스페이스 공감 '한국재즈의 새 얼굴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4집 앨범에 관한 창작실험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컬 임태웅 드럼 한인집 베이스 오원석 기타 김수유



경기남부재즈류

곡소개 Program Notes

1. 율행가

울어라 문풍지 Cry Moonpungji

(박영호 작사, 김해송 작곡, 원곡은 이난영, 1940년)

이난영이 노래한 <울어라 문풍지>는 1940년에 발매되었다. 음악적으로 당시의 전형적인 트로트 형식을 따른 이 노래는 문학적인 형상화도 뛰어나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노랫말을 보면 그 배경이 비바람이 부는 어느 날인 것을 알 수 있다. 비바람에 문풍지가 흔들리고 젖는 것에 노래 속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였다. 자신의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문풍지에 빚대어 문풍지에 “울어라”, “젖어라”라고 하였다.

2. 율요

유쾌한 시골영감 Pleasant country vibes

(범오 작사, 빌 그레이 작곡(Billie Grey),

원곡은 강홍식 노래, 1936년)

서영춘의 노래로 유명한 <서울 구경>의 원곡이다. <유쾌한 시골 영감>의 직접적인 원곡은 영국의 찰스 펜로즈(Charles Penrose: 1873-1952)가 노래한 <The Laughing Policeman(웃는 경찰관)>(1922년)이다. <유쾌한 시골 영감>은 문명의 수혜를 받지 못한 시골 영감이 생전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겪은 일을 웃음과 연민으로 풀어냈다.

3. 율행가

목포의 눈물 Tears of Mokpo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 원곡은 이난영 노래, 1935년)

1935년에 오케레코드가 주최한 향토노래 현상 모집의 당선 곡이다. 음반 가사지에는 ‘지방 신민요’라 적혀 있으나, 음악적으로는 5음 구성의 2박자, 단조라는 전형적인 트로트(유행가)의 양식을 보여준다. 노랫말은 한 여인이 입을 그리워하고 입에 대한 절개를 맹세하는 내용이지만, ‘입’은 자연스럽게 ‘고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소극적 저항을 표현한 민족의 노래로 오늘날까지 애창되고 있다.

4. 율행가

봄아가씨 A spring lady

(남풍월 작사, 문호월 작곡, 원곡은 이난영 노래, 1935년)

<봄아가씨>는 <목포의 눈물>과 같은 음반의 뒷면에 수록되었다. 봄을 맞아 설렘이 가득한 아가씨의 마음을 경쾌하게 그렸다. “삐리리리”, “졸졸졸”, “싱둥싱둥”과 같은 음성상징어는 이 노래의 경쾌함을 강화시킨다. 이 노래가 단순히 경쾌함만이 아니라는 것은 2절에서 알 수 있다. 즉 “왜 왔느냐 이 봄아 원수의 봄”에서 봄이 와서 좋은 한편, 봄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5. 율민요

꽃을잡고 Grabbing a flower

(김안서 작사, 이병상 작곡, 원곡은 선우일선 노래, 1934년)

기생 출신의 대표적인 대중가요 가수 선우일선의 데뷔곡이다. 데뷔하자마자 이 곡으로 선우일선은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특히 그는 조선 정조를 표현한 가수로 평가받았다. 내 곁에 없는 입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꽃을 잡고>는 특히 김소월의 스승이자 시인인 안서 김억이 작사한 작품으로 유명하며 당시 자신이 느낀 봄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읊은 것이라 밝힌 바 있다.

6. 율민요

관서천리 Government servants go all the way

(금릉인 작사, 문호월 작곡, 원곡은 이은파 노래, 1935년)

1930년대 중반에는 기생 출신의 대중가요 가수가 대거 등장하였다. 기생들은 기생 학교에서 전통 음악을 배웠고 그것이 노래에 자연스럽게 들어났으며 상대적으로 민중들은 조선 내세가 더 나은 신민요에 한때 열광하기도 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은파도 대표적인 기생 출신의 대중가요 가수다. 신민요는 대체로 경기민요와 닮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관서천리>는 서도민요와 닮아있어 여타 신민요와 다른 질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7. **꺠민요**

삼살개타령 Sapsal Gae Taryeong

(조명암 작사, 김령파 작곡, 원곡은 이화자 노래, 1939년)
삼살개 관련 전래민요를 조명암이 개사하고 김령파가 곡을 붙여 이화자가 노래하였다. 삼살개에게 정든 입이 오실 때 짓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가이(가희)”라고 한 다음에 들려오는 개의 소리인 “월월월월”이 재미있다. 이화자 또한 기생 출신의 대표 대중가요 가수로 당대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8. **꺠민요**

오동나무 Paulownia

(이규송 작사, 원곡은 강석연 노래, 1931년)
신민요<오동나무>는 각 절의 노랫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각 절의 후렴구에서 “에헤라(에라)”를 사용하여 전통 민요의 어법을 따랐다. 총 5절 중 3절을 제외하면 모든 가사가 이별, 눈물, 서러움, 설움, 원한 등을 표현하여 암울한 일제강점기 현실을 반영하였다.

9. **꺠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My elder brother is a busker

(박영호 작사, 김송규 작곡, 원곡은 박항립 노래, 1938년)
함경북도 출신의 박항립이 특유의 콧소리와 가성을 사용하여 노래하였다. 당시 광고에서 이 노래를 “돌부처라도 무르팍을 치고 돌아앉을 익살진진한 명랑가요”라고 소개하였다. ‘풍각쟁이’는 원래 거리를 떠돌며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돈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노래에서 ‘풍각쟁이’는 노래의 화자인 여동생이, 월급쟁이인 자신의 친오빠를 비하하기 위해 사용한 어휘다.

10. **꺠송**

다방의 푸른꿈 Blue dream of a coffee shop

(조명암 작사, 김해송 작곡, 원곡은 이난영 노래, 1939년)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으로 형성된 재즈송은 크게 번안가요와 창작가요로 나뉜다. <다방의 푸른 꿈>

은 대표적인 창작 재즈송이다. 김해송의 아내이기도 한 이난영이 부른 <다방의 푸른 꿈>은 이난영의 음악적 자장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주며 <목포의 눈물>을 부를 때와는 다른 이난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노래다.

11. **꺠송**

이태리의 정원 A garden in Italy

(이하운 작사, 에르윈 작곡, 원곡은 최승희 노래, 1936년)
일종의 ‘프리포즈 송’에 해당하는 <이태리의 정원>은 노래를 부른 가수의 성별과 노래 가사 속 화자의 성별을 일치시키면 여자가 부르는 ‘구애의 노래’이다.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다. 그는 무용가로 시작해서 영화배우, 가수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연예인(entertainer)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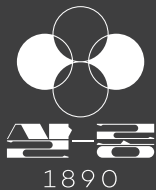
12. **꺠송**

바다의 꿈 A dream of the sea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 원곡은 이난영 노래, 1939년)
일명 ‘해수욕장 풍경’으로도 불리는 <바다의 꿈>은 일제강점기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여름날의 풍경을 재미있게 묘사한 노래다. 그 시절의 엽서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1920년대에 이미 우리나라에 해수욕장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적인 스윙 리듬의 <바다의 꿈>에서 이난영의 ‘스캇’(가사 대신 무의미한 음절을 흥얼거리는 창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글 장유정(대중음악사학자)





살롱 1890은 근대역사에서 나타나는 '주체성, 역동성, 개방성'에 주목하고, 시대를 거치며 소외되었던 장르와 문화를 재조명 및 동시대적 접점을 통해 가치를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 체험, 대담, 교육, 콘서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서울남산국악당을 찾는 모든 분에게 전통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 품격과 가치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Salon 1890 focuses on 'subjectivity, dynamism, and openness' appearing in modern history and as re-illuminating genres and cultures that have been neglected through the times and through contemporary contact points, it is a program to rediscover value. Through various forms of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s such as exhibitions, experiences, conversation, education, and concerts and so forth, Seoul Namsan Gugakdang will provide a cultural experience with dignity and value as a platform for traditional culture and art to everyone who visit.

크레딧

총감독
윤성진

디자인
파이카

상임예술위원
한덕택

주최
서울특별시

공연사업부장
김희재

주관
서울남산국악당

담당 프로듀서
유예진

공연기획팀
정민규 추도영
박예은 이아랑
유지은 이소영

I·SEOUL·U

서울남산국악당
Seoul Namsan Gugakdang

